

인사말씀

우리 종단은 갈등 해소의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위촉받은 여러 위원 여러분께 불교와 종단을 위해 주셨던 그동안의 노력, 그리고 앞으로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부대중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공의를 모아 종단의 현안을 잘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여느 종교나 단체보다도 앞서는 집단지성, 열린 탁마의 장을 열어가는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종단이 한국불교의 유구한 역사적 전통을 잇고 있지만 현대화된 종단으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것은 이제 5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갈등과 혼란의 시대를 지나 종도들의 요구와 사회적 기대를 수용하면서 한걸음씩 발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1994년 종단 개혁을 계기로 중앙종단은 대중 살림의 기틀을 확고히 했고 종단 발전의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난 50년간 종단이라는 공동체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차이와 입장 충돌로 남겨진 많은 상흔들은 종단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중공사에서 다뤄졌던 서의현 전 총무원장에 대한 사안 역시 사부대중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나아가 1994년 징계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도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단 개혁의 정신을 잇는 것은 1994년에 대한 회고가 아니라 2024년 또는 그보다 먼 종단 미래에 대한 확고한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대중공사에서 함께 참구한 각종 미래상을 실현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숙제를 풀어 가는데 오직 부처님의 법대로 대중의 지혜와 공의에 근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늘 청안하시고 하시는 일에 큰 진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